

Industry Comment

Analyst 이건재
02) 6915-5676
geonjaelee83@ibks.com

비중확대

바이오 소부장

생물보안법 통과로 국내 바이오 소부장 수혜 확실

- 중국 바이오 산업 위축 불가피
- 최대 피해는 CRDMO 사업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중국 Wuxi Group
- Wuxi Group은 중소형 바이오리액터를 활용, 초기 개발 물질 수주부터 상업화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핵심 서비스로 제공
- 국내 CDMO 반사이익의 확실시 되며 관련 밸류체인 성장 확대될 것으로 기대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생물 보안법

현지 시간 9월 9일 국내 시간 9월 10일 오전 미국 하원에서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이 압도적 찬성으로 미국 하원을 통과함. 미국 상원도 생물보안법을 지지하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연내 상원을 통해 대통령 서명 세례모니까지 진행 될 것으로 기대됨.

생물보안법은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무리없이 통과 되었으며 표면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우려하는 생명공학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에 보조금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빠르게 경쟁 국가로 급부상한 중국내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음.

중소형 설비 활용한 원스탑 솔루션 필요

우시바이오크룹은 CRDMO(CRO+CDMO+CMO) 사업을 영위하며 글로벌 바이오 산업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었음.

우시바이오크룹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달리 중소형 바이오리액터(500 ~2,000L)를 주로 보유하고 있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블록버스터급 약물의 대규모 생산과 품질의 안정성 유지가 주요 사업 모델이지만 우시바이오크룹은 고객사들의 신약 개발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 상업화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메인 비즈니스로 영위하고 있음.

금번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는 결국 우시바이오크룹을 대체할 CRDMO 플레이어의 새로운 등장 혹은 기존 플레이어들의 반사이익으로 귀결될 것으로 판단. 반사이익이 예상되는 대표 기업들은 스위스 론자, 한국 삼성바이오로직스, 미국 카탈란트, 일본 후지필름 등이며 국내 바이오 소부장 기업들은 바이오 산업 변화에 따른 성장 기회 확보해 새로운 성장기 마주할 것으로 판단됨.

Biosecure Act

Biosecure Act(이하 생물보안법)은 미국 유전자 데이터가 중국 등 적대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으로 주요 내용은 바이오 분야 중국 기업들의 영향력을 제한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지난 1월 발의되어 현지시간 9월 9일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의 경우 상임위 표결을 이미 통과해, 법제화까지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상임위인 ‘국토안보위원회’에서 40대 1이라는 압도적 찬성 비율을 나타냈기 때문에 연내 법제화가 무난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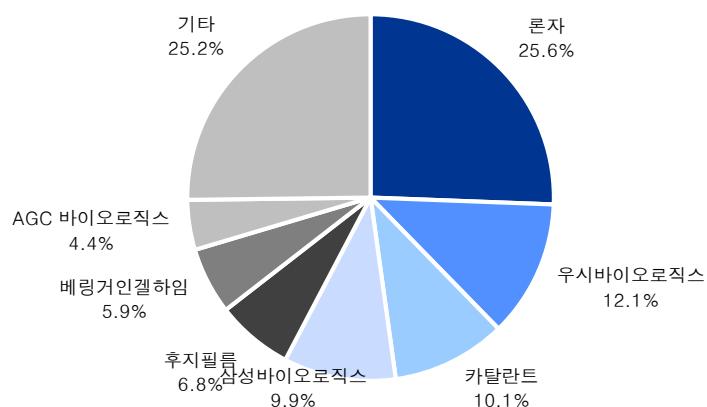
발의 당시에는 직접 규제 대상으로 BGI, MGI, Complete Genomics, Wuxi apptec 등 4개 기업만을 명시했으나, 5월 하원 상임위 제출안에는 Wuxi Biologics를 규제 기업 목록에 추가해 중국 기업 배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적대국 기업에 장비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규제대상에 포함되어 미국 내 제약/바이오 벤처체인 전반의 재정비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BGI, MGI 등 중국 바이오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공백을 일본 및 국내 기업들이 대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질적으로 지난 7월 19일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티팜은 미국 소재 바이오텍 기업에 RNA 치료제의 원료가 되는 올리고핵산을 385억원 규모로 공급한다는 공시를 발표했다. 이는 기존 중국 기업이 공급하던 원료를 국내 기업이 공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생물보안법 시행 이전부터 미국 기업들의 탈 중국 전략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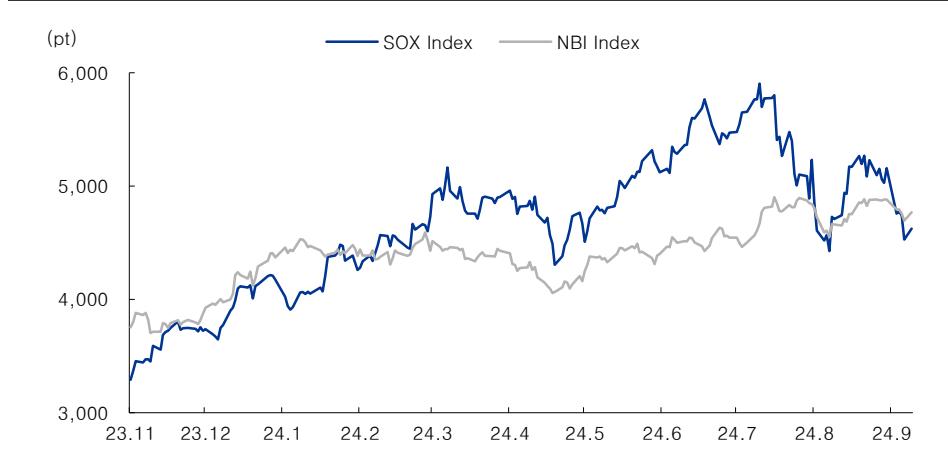
미국바이오협회(Biotechnology Innovation Organization)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국 CDMO의 영향력에 대해 조사한 설문을 통해 생물보안법의 파급력과 국내 기업들의 반사이익을 가늠해볼 수 있다. 설문에 응한 124개의 미국 내 바이오제약 기업 중 79%는 중국 기반 CDMO/CMO와 최소 1개의 계약을 맺고 있으며 74% 기업은 전임상 및 임상 서비스를 위해 중국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결국 이러한 미국 기업들과 중국 기업들의 협업이 중지됨에 따라 한국, 일본, 인도, 유럽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되며 이중 국내 기업들이 높은 확률로 높은 수혜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1. 글로벌 시장 CDMO 기업 점유율 비교



자료: 한국바이오협회,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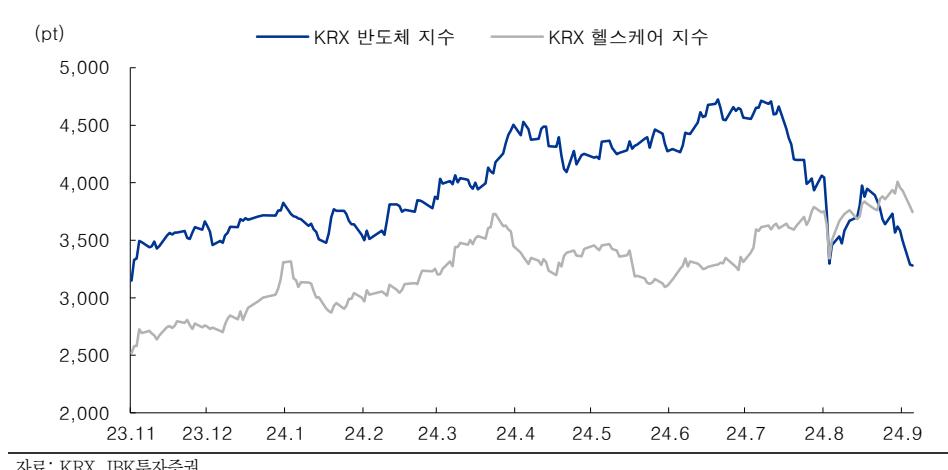
그림 2. 미국 반도체, 바이오 업종 지수 비교



자료: Bloomberg, IBK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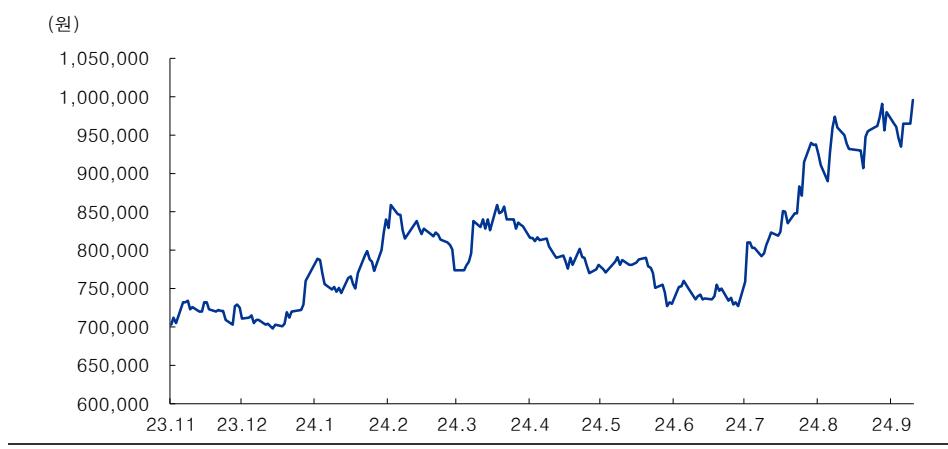
* SOX=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NBI = 나스닥 바이오테크놀로지 지수

그림 3. 국내 반도체, 바이오 지수 비교



자료: KRX, IBK투자증권

그림 4.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추이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

그림 5. WuXi Biologics, WuXi AppTec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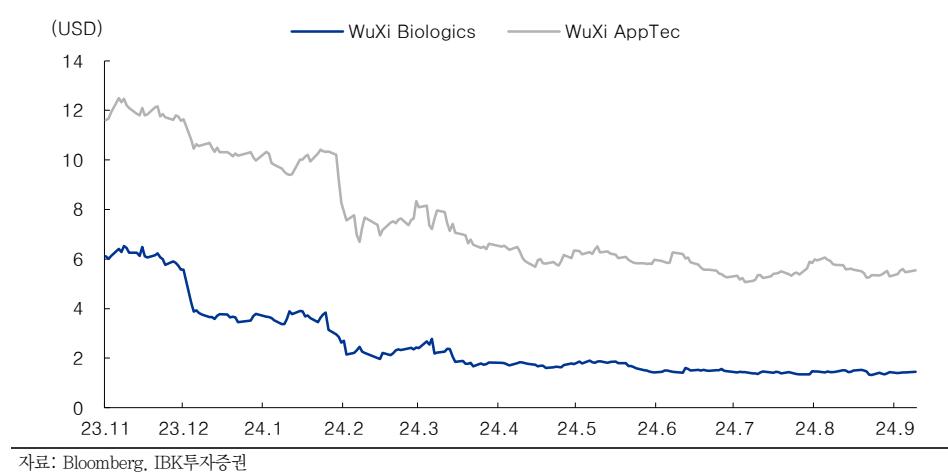


표 1. 주목해야 할 바이오 소부장 대표 기업

(단위: 억원, %)

기업명	시가총액	사업	수익률		
			1W	1M	3M
KOSPI	-	-	-5.3%	-2.5%	-6.6%
KOSDAQ	-	-	-7.1%	-7.6%	-18.3%
에스티팜	19,779	-5.7%	-5.7%	9.7%	-4.8%
바이오파인	3,968	-12.0%	-12.0%	-8.7%	-7.9%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3,003	-12.3%	-12.3%	-18.7%	-62.4%
마이크로디지탈	2,085	-6.2%	-6.2%	0.3%	53.4%
퀀타매트릭스	1,450	-20.4%	-20.4%	-55.0%	95.8%

자료: Quantiwise, IBK투자증권